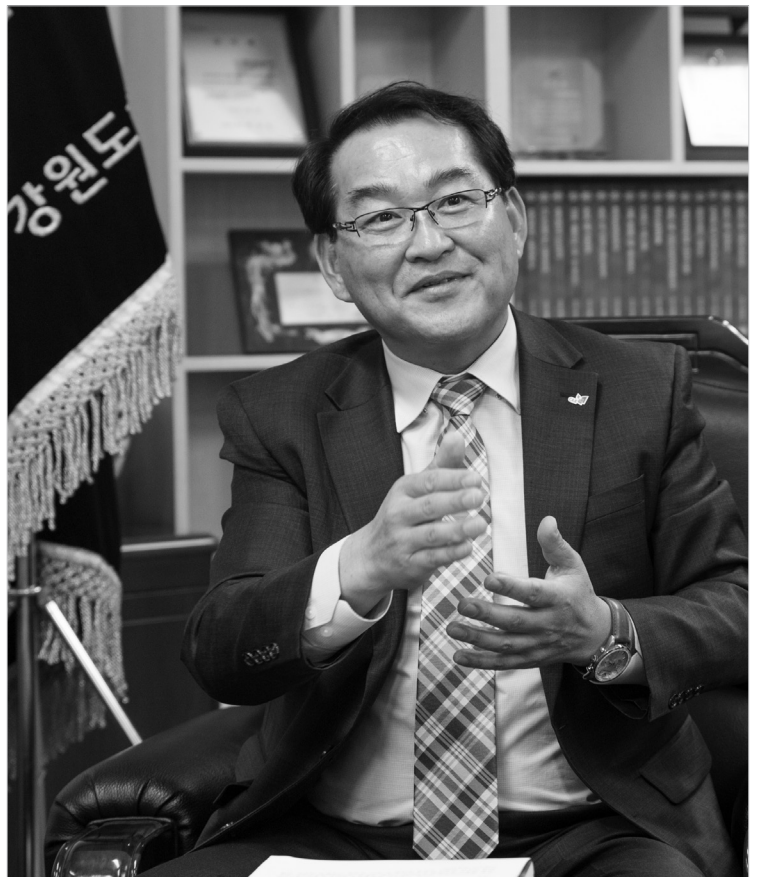


“지역 업체의 수익성 개선과 물량 확보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지난 6월 말 제21대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으로 취임한 오인철 (주)태성종합건설 대표가 3년 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취임 후 곧바로 도내 발주기관을 직접 뛰어다니며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전하고, 대형 공사의 분할 발주를 유도하는 등 지역 업체의 수주 증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9월 홍천을 시작으로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의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현재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특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공공 물량의 축소, 수익성 악화 등으로 도내 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외지 업체의 지역 내 물량 수주로 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오인철 회장은 “표준시장 단가제의 합리적인 추진 등으로 수익성을 개선하고 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 적용 요구 등으로 물량 확보에도 주력하겠다”며 현재의 위기에 적극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홍천에서 태어나 1980년대 중반부터 고향에서 건설업을 시작해 홍천의 상가 건물 중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의욕적인 건설인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강원도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만큼 지역 내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오인철 회장을 지난달 24일 만나 지역 건설업의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신임 회장

“회장 취임 후 도내 주요 발주기관을 직접 발로 뛰면서 분할 발주 등을 요구하여 지역 업체가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지역 건설업 역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취임 이후 강원도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셨는지요?

지역 건설업계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장을 맡게 되어 기쁨에 앞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취임에 앞서 회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폭넓은 의견들을 수렴했으며 그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는 수익성 악화, 물량 부족, 발주기관의 부당 요구 문제들에 대해 실제 사례와 구체적인 의견들을 취합했습니다. 취임 후에는 지자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등 도내 주요 발주기관들을 돌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현실을 알리고, 기관별 특성에 맞게 여러 현안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각종 건설 수주 지표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호황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업체들은 이러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업체들의 공공공사 의존율이 높은 원인도 있지만 발주 규모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주요 발주기관을 직접 발로 뛰면서 분할 발주 등을 요구하여 지역 업체가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하거

나 과도한 제한으로 입찰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사를 위해 협회의 공사 입찰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매진할 예정입니다.

강원 건설산업은 지리적 여건상 넓은 면적과 지역마다 각기 다른 특색으로 인해 적잖은 견해 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여러 지역의 의견 수렴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요.

강원도는 지리적으로 내륙과 바다를 모두 지니고 있고 넓은 지역에 비해 인구 밀도는 낮은 지역별로 각기 다른 특색과 다양한 견해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정부 정책이나 정치적으로도 많이 소외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원도 건설인들 또한 회원간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이나 협회 활동에서 단합된 모습을 보인다면 모두가 우리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간의 교류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하기에, 지난 9월부터 도내 시·군별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협회의 활동과 현안들을 알리고 회원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 애로 사항을 청취해 향후 시책 등에 적극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도내 전 지역을 순회하며 회원과의 교

인터뷰

“ 동계올림픽 공사를 통해 지역 업체들이 혜택을 받고, 이를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철새 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하여 이 같은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가뭄으로 일부 지역의 경우 식수가 부족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강원 지역의 경우 다목적댐 등 많은 수자원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의 활용성을 높여줄 치수 사업은 어느 정도로 추진되고 있는지요?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지방 하천의 경우 상습 침수 지역이나 수해가 우려되는 하천에 대한 제방 보강 및 신설을 위해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총 120개소 655km 구간을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50개소 156km 구간을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21개소 31km 구간의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정비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재해 예방 및 친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소하천 정비사업을 199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총 2,510개소 3,978km 구간을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 1,970km 구간을 정비하였으며, 올해는 39개소 29km 구간을 추진 중입니다. 강원도는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등 자연 환경에 따른 각종 개발 행위들이 많이 제한되고 있으나 금년 가뭄과 같은 피해를 대비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많은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제반 공사 등으로 타 지역에 비해 수주 물량이 많을 것으로 여겨

지지만 실제 체감되는 건설경기는 예상만큼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강원 지역의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건설경기는 어떠한 상황이며, 회원사들의 수주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요?

아시는 바와 같이 동계올림픽 공사는 경기장 건설 및 기반 인프라 조성 등 주로 대형 공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역 중소 업체의 참여가 극히 제한적이고, 지역의무 공동도급 등 도내 업체가 일부 참여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높은 실적과 재정력을 필요로 합니다.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일부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하여 동계올림픽 공사는 그저 “그림의 떡”이 된 실정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공사는 발주되어 진행 중이지만 일부 접근 도로 시설 등의 물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향후 공사 발주시 중소 지역 업체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강원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회원사 중 한 해에 단 한 건의 공사도 하지 못하는 업체가 30~50개사 정도로 파악되며, 1년간 수주액이 평균 10억원을 넘지 못하는 업체가 전체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민간 건설의 경우 춘천, 원주 등 수도권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등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늘어나 민간 건축 공급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외지 업체들의 진출 또한 함께 비례하여 늘고 있어 도내 업체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건설산업도 성장기를 지나 이제 성숙기에 접어든 만큼 공사 수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어야 하고 시설물 평가에 대한 관점 역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도내 공공공사 수주 물량을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주액은 약 9,709억원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10.12%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동계올림픽 공사 등으로 최근 몇 년간 일시적으로 늘어난 공급 물량이 빠져나가면서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 연말까지 군 시설 미집행 물량들이 일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예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류상으로만 도내 업체로 둔갑하는 이른바 철새 업체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 업체의 주 영업소재지 기준으로 인한 각종 소송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강원도의 경우 과거 수해 때마다 무분별한 철새 업체들의 전입으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문제가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공사를 통해 지역 업체들이 혜택을 받고, 이를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철새 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하여 이 같은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는 별다른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언론이나 관계 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최근 강원도 차원의 실태 조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번 실태 조사를 계기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업체의 퇴출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여 철새 업체의 원천적인 전입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건설산업에서는 수주난 외에도 수주에 성공해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수익성 악화 또한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건설업체들의 자구적인 노력 외에도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표준시장단가제의 조기 정착과 현실 기준 반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수익성 악화의 주범으로 불리던 실적공사비를 대신하는 제도인 만큼 그동안 업계의 노력이 결과로 나타나야 할 것이며, 미래 세대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표준시장단가제의 현실 기준 반영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건설산업도 성장기를 지나 이제 성숙기에 접어든 만큼 공사 수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어야 하고 시설물 평가에 대한 관점 역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수요자는 무조건적인 가격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공급자인 건설업체는 높은 품질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하여 안전과 수익이 공존하는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CERIK

글 · 사진 : 이형우 편집장, 인홍진 연구원